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및 세대간 요인에 관한 연구*

Individual and intergenerational variables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females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정혜정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서병숙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Hyejeong Chung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Byong Sook Se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and intergenerational variables with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elderly females and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PWB. 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202 elderly females in Seoul, who were recruited through quota sampling method.

Two-way analysis of variance result indicated tha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the presence of spouse on PWB was existed. Though mos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WB of elderly female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ree variables--self-efficacy, self-esteem,

* 이 연구는 첫 번째 연구자에 대한 1996~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구과정의 부분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affectional solidarity with adult children-- significantly influenced PWB, and three variables--coresiding with the first son's family,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and contact solidarity--approached the significance level to the effect on PWB.

1. 서 론

노년기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 가정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활동의 축소 및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존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는 성공적인 노화 및 성공적인 적응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적응이 세대간 요인(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결속도), 부부관계 요인,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왔다(Arcus, 1993; Treas & Bengtson, 1987).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 또는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여성노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 보다 1.7배 많으며, 유배우율은 남자노인 82.6%, 여성노인 26%로서 여성노인의 3/4는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다(통계청, 1995). 또한 여성노인은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다수를 점유하는 집단 가운데 하나이며, 출산과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심각한 노후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노인은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여성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여성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동향과 여성노인 특유의 적응문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요인과 세대간 요인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떤 요인이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론적, 경험적 차원 뿐 아니라 가족복지 차원에서 볼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노인 또는 노인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방향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등 가족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세대간 요인, 개인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나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2)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세대간 요인 및 개인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함으로써, 여성노인이나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여성노인들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노인들이 가장 빨리 늙어가는 인구층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구의 노령화는 주로 여성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중 5.7%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2000년에는 6.8%, 2020년에는 1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 100명에 대해 남자노인은 60.7%로 여성노인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배우자율에 있어서도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경우 유배우자가 85.7%이나 여성노인의 경우 30.4%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

의 유배우자율은 약 3배 가량 높다(통계청, 1995).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노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배우자보다 평균 12년을 더 오래살면서,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 궁핍, 출산조절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의 잦은 자녀출산·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성특유의 건강문제,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노후적응 문제 등을 남성노인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조병은, 1990b). 그러나 여성노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무배우자율로 인해 돌보는 사람과 정서적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서구적 가치관의 도입으로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세대 여성노인들의 질적인 삶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또한 남성노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경제적인 부양은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한 채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일생을 지내왔고, 또 노년기에는 자손 특히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규범속에 살아왔다(조병은, 1990b)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노후적응을 위한 복지정책이 수입원을 가진 남성들을 위한 정책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형편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낮은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및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남성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채 더 오래사는 여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역할만을 담당하도록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속에서 남성노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행복감에 있

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감에 있어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높았고(윤현희, 1994), 박정은(1990)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를 통제했을 때, 성차보다는 유배우자의 생활 만족도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즉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여성노인의 27%만이 배우자가 있는데 반해 남성노인의 경우는 85%나 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그리고 유배우 노인보다 무배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낮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및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노인들만이 겪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밝혀냄으로써 여성들의 노년생활이 독립적이고 질적인 삶이 되도록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가 자녀와의 결속도로 나타나는 세대간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1)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요인과 경제적 요인, (2)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 그리고 (3)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 정도를 포함한다. 다음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개인적 요인

(1)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

우선 노인의 연령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고독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맹희재, 1985; 이종범·정성덕, 1985;

Blazer et al., 1991)가 있다. 한편 여성노인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70세 이하의 연소노인들보다 높다는 연구(박충선, 1990)와 연령집단에 따라 홀로된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조옥희 등, 1991) 등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노인의 용돈이나 경제수준과 심리적 복지와 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신효식·서병숙, 1992). 이와같이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 아니라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심리적 복지와 관련이 있어서, 노인들이 용돈과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박충선, 1990; 조옥희 등, 1991).

셋째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김태현, 1981; 김명자, 1982; 박의연·유영주, 1989; Blazar, 1987; Thompson, 1984)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소외감, 우울감,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충선(1990)은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므로 배우자의 존재는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실증적 연구를 한 결과,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건강상태와 심리적 복지와 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김태현·김수정, 1996; 박의연·유영주, 1989; 박충선, 1990; 송대현·박한기, 1992; 신효식·서병숙, 1994; 조옥희 등, 1991; Husaini, 1991; Liang, 1982; Quinn, 1983)은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주었다. 즉 객관적 건강상태인 거동불편 정도가 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성노인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다섯째,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수연, 1987; 김태현, 1981; 임종권, 1985)가 있는 반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의 소외감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박의연·유영주, 1989)도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박충선(1992)의 연구에서는 장남과 동거하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여섯째로, 노인의 종교유무와 심리적 복지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노인이 종교를 갖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 소외감, 생활만족도 등 심리적 복지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태현·김수정, 1996; 맹희재, 1985; 박의연·유영주, 1989; 이종범·정성덕, 1985)가 있는 반면,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라서 심리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박충선, 1990; 조옥희 등, 1991)도 있으며, 이렇게 불일치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곱째, 교육수준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이 높은 집단보다 소외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박의연·유영주, 1989),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여성노인의 교육정도와 생활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박충선, 1990)도 있어서 교육수준과 심리적 복지와 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요인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결과, 건강 및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연령, 교육수준, 동거형태, 종교유무 등에 따라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불일치한 연구결과로 밝혀진 요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개인심리적 요인

노인의 심리적 복지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성

역할정체감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한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성정형화된 사람보다 양성적인 사람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왔다(임정빈·정혜정, 1997 참조). 노인의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김태현·유은희, 1987)에서도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정체감을 가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보다 더 높았다. 또한 여성성이 높은 여성노인들은 생활의 부적응을 보였고 자기비판 경향이 높았으며, 가정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높은 여성이 노년기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보다 많음을 발견하였다(Mass & Kuypers, 1974, 김태현·유은희, 1987에서 재인용). 이것은 노년기의 생활만족이 여성적인 역할과 남성적인 역할을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는 시각과 일치한다.

자기통제력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행동여하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지각하는지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내외통제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외적으로 통제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반해, 내적으로 통제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은 내적 통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Krause, 1986).

자아존중감 또한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정의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기거부, 자기멸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Rosenberg, 1965). Bengtson과 Reedy 그리고 Gordon(1985)에 의하면 노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 생활사건들에 의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며, 자존감이 높은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신효식·서병숙, 1994).

(3)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복지

스트레스원(stressors)은 개인이나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나 긴장(strain)이다. 노년기의 스트레스원은 최근의 생활사건과 만성적 긴장, 과거의 생활위기를 모두 포함한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최근의 부정적 생활사건은 배우자나 가족원 등 가까운 사람들의 질병이나 죽음,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갈등이나 고립, 그리고 경제적 여유부족의 경험이다(송대현·윤가현, 1989; Pearlin & Mullan, 1995). 수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은 정신건강과 관련있는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심리적 복지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Kahana et al., 1995 참조). 윤현희(1994)의 연구에서도 남녀노인 모두 가족관계와 경제문제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졌는데,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과 더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원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이외에도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이나 위기를 의미하는 만성적 긴장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Wheaton(1994)은 아동기의 상처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고, Kahana 등(1995)도 일생 동안의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예, 먹을 것이 부족해 고생한 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이 노년기의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는 최근의 부정적 생활사건뿐 아니라 일생 동안의 위기경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세대간 요인

세대간 요인은 자녀 및 손자녀와의 결속을 가리키

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결속은 6가지 하위요소, 즉, 구조적, 접촉적, 애정적, 일치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으로 구성된다. 구조적 결속은 3가지 측면, 즉 자녀수, 자녀와의 거주거리, 가구의 구성(동거, 비동거)의 측면에서 설명되며, 접촉적 결속은 세대간의 접촉이나 공동행동의 양을 나타낸다. 애정적 결속은 부모자녀간의 질적인 관계, 즉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 가까움의 정도이며, 일치적 결속은 자녀양육, 금전관리, 인생관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에 있어 세대간의 유사성이나 일치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기능적 결속은 노부모가 갖고 있는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을 말하며, 규범적 결속은 부양의식에 대한 노부모의 기대감을 말한다(조병은, 1990a).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자녀와의 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와의 결속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은 대부분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접촉량이 많을수록, 일치적 결속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능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높았다(김태현·김수정, 1996; 신효식·서병숙, 1992; 최정혜, 1992).

이상과 같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여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
- (2)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자녀와의 결속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 및 세대간 요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표집

본 연구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997년 5월에 면접훈련을 받은 대학졸업 이상의 조사원들에 의해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연령과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할당표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령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60세부터 80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5세를 단위로 하여 다섯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배우자 유무를 백분율로 산출한 다음 표집할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였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직접 면접조사하였으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된 28부를 제외한 202부만을 최종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9.13세이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98명(49%)으로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상의 응답자는 13.5%(27명)이었다. 남편이 있는 경우가 74명(36.8%)이고 남편이 없는 경우가 127명(63.2%)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동거형태를 보면 장남 부부와 사는 경우가 74명(36.6%)으로서 가장 많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10.9%, 노부부만 사는 경우가 13.4%였다. 한달 평균 용돈을 조사한 결과, 용돈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14명(7.3%)이었고, 29.3%가 한달 평균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고 있었으며 30만원 이상도 16% 정도였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156명, 80%)가 없는 경우(20%)보다 훨씬 많았으며, 평균자녀수는 4.05명이었고 조사대상자의 3분의 2정도(72.15%)는 자녀가 모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구성 및 내용

개인적 변인 가운데 주관적 건강은 자신의 연령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정도를 묻는 문항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건강이 방해되는 정도를 묻는 2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관적 용돈 만족도는 노인이 자신의 용돈이 충분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기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 구성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Chung 등(1996)과 송현애 (1993)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5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에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선택범위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이었다.

2)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은 장하경과 서병숙(1991)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척도 가운데 노인에게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문항을 제외하고 여성성 문항 8문항, 남성성 문항 8문항, 중성성 문항 4문항 등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였으나, 여성노인에게 무리한 응답범주라고 판단되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치 반분법을 채택하여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측정 결과 남성성 척도는 Cronbach's $\alpha=.78$, 여성성 척도는 Cronbach's $\alpha=.65$ 였다.

3)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기초로 하여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6개의 문항을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64$ 였다.

4) 스트레스원

노인의 스트레스원의 경험에 관한 척도는 많은 연구들(Hooyman & Kiyak, 1988; Kahana et al., 1995; Krause, 1986, 1991; Krause & Liang, 1993; Pearlin & Skaff, 1996; Pilisuk et al., 1993)을 기초로 하여 2개 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① 만성적 스트레스원에 관한 문항 12문항과 ② 최근의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경험으로 스트레스원을 측정하였다. 각 응답내용에 대해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며, 경험하였을 경우 그 경험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를 물어서 속이 상했다고 응답했을 경우만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사결과, 스트레스적 생활경험은 Cronbach's $\alpha=.64$, 만성적 스트레스원은 Cronbach's $\alpha=.62$ 였다.

5) 세대간 결속

세대간 결속은 Treas와 Bengtson(1987)의 가족결속

도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조병은(1990a)이 작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와의 결속은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 등 4개 하위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조적 결속은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 동거형태로 측정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접촉적 결속은 2문항 5점 척도로서, 자녀와 전화 등을 통한 간접적 접촉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자녀와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를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68$).

애정적 결속은 자녀와의 애정적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어 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Cronbach's $\alpha=.95$), 일치적 결속은 자녀양육방법, 금전관리방법 등의 가치관에 대하여 자녀와 일치하는 정도를 3문항의 5점 척도(Cronbach's $\alpha=.68$)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기능적 결속은 노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는 것과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내용의 8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69$).

6)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 척도는 Liang(1985)이 심리적 복지의 다양한 차원들간의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합된 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한 심리적 복지 측정 모델에 포함된 13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복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IV. 연구 결과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은 부정 편포(negative skewness)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에 대한 자료는 제곱근 형태로 변형(square root transformation)시켜 추후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할당표집에 의한 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연령과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자기통제력과 일치적 결속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자기통제

력 정도가 높았으나 일치적 결속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그 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을 다섯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변수의 연령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용돈, 주관적 건강, 자기통제력, 접촉적·일치적·애정적 결속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2> 참조).

또한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령과 배우자 유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이원분산분석에 의해 검증한 결과, 각 변수의 주효과는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었다. 즉 <표 3>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았으나 7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았고, 특히 70세 이

<표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배우자	용돈 평균	주관적 용돈	주관적 건강	자기 통제력	자존감	접촉적 결속	기능적 결속	일치적 결속	애정적 결속	심리적 복지
있음	170.38	2.68	3.06	14.69	20.49	8.23	17.82	9.19	18.85	38.88
없음	149.63	2.92	3.01	12.93	20.54	7.99	18.55	10.53	19.93	39.34
t 값	.91	-1.32	.26	1.17**	-.09	.74	-1.00	-3.70***	-1.56	-.30

* p<.05 ** p<.01 *** p<.001

<표 2>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차이

연령 변수	용 돈		주관적 용돈		주관적 건강		자기통제력		자존감 평균
	평균	Duncan	평균	평균	Duncan	평균	Duncan		
60-64세	174.17	AB	2.77	2.84	BC	15.42	A	20.65	
65-69세	197.55	B	3.00	3.16	AC	14.52	A	20.98	
70-74세	128.91	AC	2.49	3.41	A	11.53	B	18.92	
75-79세	99.75	AC	3.00	3.13	ABC	10.86	B	21.39	
80세이상	109.72	AC	2.96	2.44	B	11.61	B	20.87	
F 값	2.77*		1.14	2.96*		8.84***		1.7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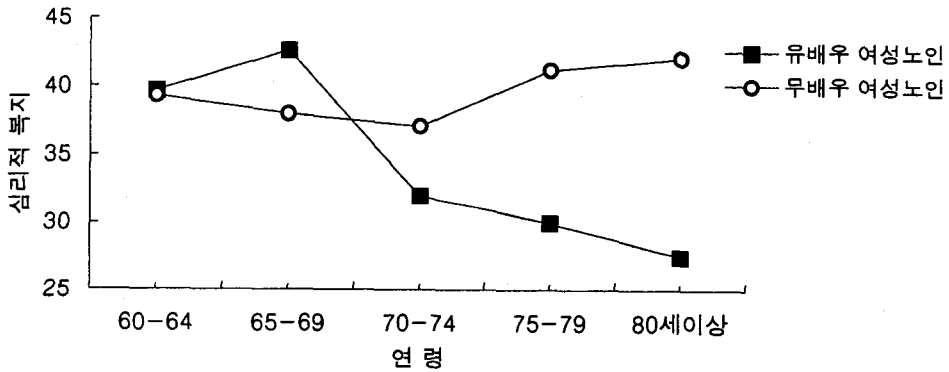
<표 2 계속>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차이

연령 변수	접촉적 결속		기능적 결속		일치적 결속		애정적 결속		심리적 복지 평균
	평균	Duncan	평균	평균	Duncan	평균	Duncan		
60-64세	8.48	AC	18.69	9.11	B	19.31	B	39.78	
65-69세	8.22	A	19.10	10.52	A	20.35	BC	39.94	
70-74세	7.14	B	16.56	9.32	B	16.95	A	35.74	
75-79세	8.09	A	17.91	11.46	A	22.08	C	40.25	
80세이상	7.91	A	17.96	11.22	A	19.65	BC	39.91	
F 값	2.39*		1.63	7.33***		5.31***		1.21	

* p<.05 ** p<.01 *** p<.001

〈표 3〉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령과 배우자 유무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배우자	60 - 64세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세이상
있음	39.67	42.60	32.00	30.00	27.50
없음	39.31	37.97	37.08	41.18	42.05
주효과 :	연령	F = 1.31		n. s.	
	배우자유무	F = .11		n. s.	
상호작용효과 :	연령 X 배우자유무	F = 2.64		p < .05	



〈그림 1〉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령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상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배우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으로서 여성노인의 개인적 변수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또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와 5〉 참조), 종교유무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심리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거형태와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 혼자사는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노부부만 사는 경우와 기타의 가족형태에 속한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는 중간정도였으나 이들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여성노인의 성역할정체감을 중앙치에 의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양성성이 33.5%(68명)으로 가장 많

았고, 미분화 49명(24.1%), 여성성 44명(21.7%), 남성성 35명(17.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다른 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개인적 변수들과 심리적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대로 연령과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용돈이 충분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높았다. 자기통제력과 자존감 또한 심리적 복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

〈표 4〉 변수별 집단간 심리적 복지의 평균 차이

변 수		평균	t, F 값	Duncan	변 수		평균	t, F 값	Duncan	
종교 유무	있 음	39.84	1.50		교육 수준	무학	38.53	.31		
	없 음	37.08				국졸	39.92			
동거 형태	혼자	33.09	3.10**	A		중졸	38.67		2.79*	
	노부부만	40.64		B		고졸이상	40.21			
	장남부부와	42.31		C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37.65	A		
	장남외 아들가족과	37.38		B		남성성	38.03	A		
	딸가족과	37.63		B		양성성	42.12	B		
	기타	37.13		B		미분화	37.64	A		

* p<.05 ** p<.01 *** p<.001

〈표 5〉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2. 자녀수	.09												
3. 용돈	-.20**	.05											
4. 주관적 용돈	-.01	.10	.24**										
5. 주관적 건강	-.10	.10	.13	.36***									
6. 자기통제력	-.38**	-.02	.24**	.19**	.29***								
7. 자존감	.04	.13	.17*	.17*	.27***	.40***							
8. 만성적 스트레스원	.15*	-.07	-.08	-.16*	-.06	-.16*	-.10						
9. 최근의 생활사건	-.20**	.03	-.01	-.21*	-.13	.15*	-.07	.25**					
10. 접촉적 결속	-.13	.05	.12	.27***	.09	.20**	.14*	-.18*	-.11				
11. 기능적 결속	-.13	.17*	.19*	.17*	.06	.30***	.11	-.20**	.08	.41***			
12. 일치적 결속	.38***	.05	.06	.19*	.02	-.20**	.08	-.17*	-.28***	.17**	.06		
13. 애정적 결속	.07	.14*	.08	.25***	.12	.16*	.28***	-.24**	-.20**	.41***	.36***	.42***	
14. 심리적 복지	-.03	.11	.22**	.41***	.32***	.41***	.56***	-.29***	-.28***	.26***	.22**	.24**	.47***

* p<.05 ** p<.01 *** p<.001

았다. 한편 일생동안의 위기사건 경험으로 나타나는 만성적 스트레스원과 최근의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았다. 또한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 세대간 결속과 심리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접촉적, 일치적, 애정적 결속 등 자녀 결속도의 하위 4개 요인 모두 심리적 복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즉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세대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결과 심리적 복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만 선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①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동거형태, 주관적 건강, 용돈과 주관적 용돈), ② 개

인심리적 요인 (성역할정체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③ 스트레스원 경험(만성적 스트레스원과 최근의 생활사건), 그리고 ④ 자녀결속도(일치적, 기능적, 접촉적, 애정적 결속) 등을 각 블록(block)으로 하여 각 블록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 즉 결정계수(R²)는 어느 정도이고 블록을 첨가함에 따라 결정계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각 블록에서 심리적 복지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각 블록에 포함된 변수들의 자기회귀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 - 2.35 사이의 값을 보여 오차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산포도(scatterplot)에 의한 오차항의 분산도도 0을 중심으로 퍼져 있어서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각 블록에 있는 변수들을 첨가함에 따라 결정계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회귀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비율은 60%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고려

〈표 6〉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lock 1	Block 2	Block 3	Block 4
동거형태1	-3.68(-.15)	-1.52(-.06)	-2.25(-.09)	-1.39(-.06)
동거형태2	3.39(.17)	4.82(.24)*	4.03(.20)*	3.92(.19)†
용돈	.01(.14)	.00(.05)	.00(.04)	.01(.07)
주관적 용돈	1.67(.21)**	1.55(.20)*	1.54(.20)*	1.28(.16)†
주관적 건강	.97(.21)**	.31(.07)	.14(.03)	.28(.06)
성역할정체감 ^a		.91(.04)	.85(.04)	.25(.01)
자기통제력		.50(.22)*	.53(.24)*	.69(.31)**
자아존중감		.83(.32)***	.83(.32)***	.68(.26)**
만성적 스트레스원			-.09(-.02)	.22(.05)
최근 생활사건			-.77(-.13)	-.78(-.13)
접촉적 결속				-4.76(-.20)†
기능적 결속				.10(.05)
일치적 결속				.47(.11)
애정적 결속				4.26(.26)*
상수	26.97	7.04	10.11	-2.44
R ² change		.17***	.02	.08*
R ²	.33***	.51***	.52***	.60***

† p<.10 *p<.05 ** p<.01 *** p<.001

·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임

· 동거형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노부부만 동거하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는 혼자 살거나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기타의 동거형태에 속한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거형태 1은 혼자사는 경우를 1로 하였고, 동거형태 2는 장남부부와 사는 경우를 1로 하였으며, 노부부만 사는 경우를 양쪽 모두 제외범주로 가변수화하였다.

a.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 분석 결과 양성성과 기타 세 유형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타 세유형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성역할 정체감의 가변수 (양성성=1, 기타 유형=0).

할 때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자기통제력이었고, 자존감과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심리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장남과 동거하는 여성노인이 기타 가족 형태에 속한 여성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용돈과 접촉적 결속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수준에 접근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 및 세대간 요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의 차이 또는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함으로써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연령과 배우자 유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변수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었다. 즉 70세 미만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더 높았으나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부인 역할의 상실은 여성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상실로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여성이므로 여성노인에게 배우자 유무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예, 김태현, 1994; 서병숙, 1991)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여성노인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 유무만으로는 심리적 복지를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약화와 더불어 배우자가 있을 경우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적 규범속에서 자신보다 더 고령일 것으로 추측되는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령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고령 여성노인이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함과 동시에 적어도 여성이 70세 이상에 속할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라서도 심리적 복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혼자사는 집단이 가장 낮은 심리적 복지 수준을 보였으나 노부부만 사는 집단과 기타의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박충선(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아직도 노후는 장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족윤리에 따라 생활할 때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적어도 여성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3세대 직계가족이 가장 바람직한 가족형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낮았다는 점은 이들 여성노인 집단이 풍요롭고 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성노인의 교육수준과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심리적 복지 수준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서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여성노인 집단이 기타 유형의 집단보다 심리적 복지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여성적 성향과 남성적 성향을 균형있게 내면화시킨 양성적인 여성노인이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성있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령과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은 심리적 복지와 강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자신을 가치롭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은 높았

다. 또한 일생동안 여러 가지 위기나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건강·가족관계·재정·상실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스트레스원이 최근의 생활사건뿐 아니라 일생동안의 위기를 포함한다는 외국의 문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자녀결속도의 4개 하위요인도 모두 심리적 복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자녀로부터의 이해와 신뢰, 존중과 사랑 등을 많이 받는 애정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변수들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요인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60%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가 개인적 요인, 부부관계 요인, 세대간 요인 등 세 부류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통제력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돈 그 자체보다도 자신의 용돈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여성노인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기통제력뿐 아니라 자녀로부터의 애정과 신뢰가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배우자 유무나 남편과의 동거여부보다는 장남가족과 더불어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 여성노인이 심리적으로 가장 만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를 서울지역에 제한하여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나, 노인의 중요한 인구학적 배경요인인 연령과 배우자 유무를 기초로 할당표집함으로써 표집으로 인한 편이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노년기를 맞고 있는 여성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여성,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 모두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여성노인의 노년생활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질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불어 자녀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에서는 평생 인내와 희생속에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노인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양성성을 발달시킬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해서 배우자 유무가 연령과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부부관계의 어떤 측면(예, 역할분담, 권력관계, 의사소통 등)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노년기의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통한 노후적응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개인적 및 세대간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조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가 이들 요인의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분석한다면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20(3), 46-54.
- 김태현 (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 (1994). *한국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김수정 (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9.

- 김태현·유은희 (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5(4), 113-121.
- 김현화·조병은 (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성역할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207-227.
- 김효심·신효식 (1995). 노인의 생활만족도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66-73.
- 맹희재 (1985).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란 (1991). 한국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현황. 최재석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간행위원회 편. *한국사회와 역사*. 서울: 일지사.
- 박의연·유영주 (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9-212.
- 박정은 (1990).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여성연구*, 8(3), 27-83.
- 박창선 (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 송대현·윤가현 (1989). 노년기의 고독감 I: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 64-78.
- 송현애 (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신효식·서병숙 (1994). 노부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한국노년학*, 14(2), 121-132.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중범·정성덕 (1985).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431-444.
- 임종권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임정빈·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장하경·서병숙 (1991). 성역할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조병은 (1990a).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조병은 (1990b).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8(3), 5-26.
- 조옥희·신효식·박옥임 (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15-130.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최혜경 (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Arcus, M. E. (1993). Family life education for midlife and later life families. In M. E. Arcus, J. D. Schvaneveldt, & J. J. Moss (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ume 2: The Practice of family life education*. Newbury Park, CA: Sage.
- 이정연·장진경·정혜정 공역. *가족생활 교육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Blazer, D., Burchett, B., Service, C., & George, K. (1991). The association of age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An epidemiologic explo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6(6), M210-M215.
- Chung, H., Crawford, D. W., & Fischer, J. L. (1996). The effects of conflict with mothers-in-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of Korean daughters-in-law.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5(1), 57-78.
- Hooymann, N. R., & Kiyak, H. A. (198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Husaini, B. A., Moore, S. T., Castor, R. S., Neser, W., Whitten-Srovall, R., Linn, J. G., & Griffin, D. (1991). Social Density, stressors, and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block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6(5), 236-242.

- Kahana, E., Redmond, C., Hill, G. J., Kercher, K., Kahana, B., Johnson, J. R., & Young, R. (1995). The effects of stress, vulnerability, and appraisal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17*(4), 459-489.
- Krause, N. (1986). Stress and coping: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41*(5), 617-622.
- Krause, N.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4), 512-519.
- Krause, N.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2), S84-S92.
- Krause, N., & Liang, J. (1993).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Chines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8*(6), P282-P291.
- Liang, J. (1984). Dimensions of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A structural form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9*, 613-622.
- Liang, J. (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5), 552-561.
- Pearlin, L. I., & Mullan, J. T. (1992). Loss and stress in aging. In M. L. Wykle, E. Kahana, & J. Knwal (Eds.), *Stress and health among the elderly*. NY: Springer.
- Pilsuck, M., Montgomery, M. B., Parks, S. H., & Acredolo, C. (1993). Locus of control, life stress, and social networks: Gender differences in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Sex Roles, 28*(3/4), 147-166.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 Treas, J., & Bengtson, V. L. (1987). The family in later years.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Brunner/Mazel.